

‘사회적 통증’ 개념을 통한 청소년 정신건강 이해 : 중독과 자살생각

- ▶ 책임연구원 : 장근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전우영(충남대학교 · 교수)

발 간 사 ■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989년 ‘한국청소년연구원’으로 설립된 후, ‘한국청소년개발원’을 거쳐 현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으로 변모하는 동안 정부, 학계, 현장과 지속적으로 연계하는 동시에 관련 수요자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청소년 관련 연구 및 활동들을 주도해 왔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세대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로 빈곤위기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구조의 다변화와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은 청소년정책 환경의 주요한 변화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육열이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에 지나친 학업경쟁으로 이어진 반면 개인화에 따른 전통적인 공동체 개념의 소실은 사회적 연결망의 해체로 이어지며 성인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른 청소년 관련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현장 적용가능성이 높은 대안을 적시에 제안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상술한 맥락에서, 사회적 통증(Social pain)에 대한 본 연구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적 통증은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이나 집단으로부터 배척당하거나 자존감에 상처를 입을 때 느끼는 심리적 통증을 말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관계로 인해 경험하는 심리적 통증이 물리적 통증과 다르지 않으며, 이러한 통증이 청소년들의 심리적 사회적인 문제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밝혀내고자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청소년 정책 연구 분야에서 사회적 통증에 대한 연구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 연구가 지닌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 청소년들이 직접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통증의 실태에 대해서 학술적·정책적인 관심과 논의의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 연구가 사회적 통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청소년 행동문제를 극복하도록 도울 수 있는 새로운 정책적 요구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5년 11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노 혁 드림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청년들이 경험하는 사회적인 배척과 그로부터 유발되는 사회적 통증의 현황과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조사 대상자들(10대, 20대 청소년)은 대인관계보다는 사회시스템으로부터의 배척과 통증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한국의 정치와 경제가 자신들을 가장 크게 배척하는 것으로 지각했다. 사회적 통증에 관련된 변인들을 사용한 경로모형 결과 대인관계와 사회시스템이 유발한 사회적 통증은 개인이 경험하는 심리적 통증(외로움, 불안, 우울)과 신체적 통증(두통, 복통, 흉통, 어깨 통증, 기타)을 유의미하게 예측했다. 즉, 사회적 통증을 심하게 경험할수록 심리적 통증과 신체적 통증 경험이 더 컸으며, 사회적 배척으로 인해 유발된 심리적 통증이 신체적 통증을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통증에 의해 유발된 심리적 통증은 자기조절 능력을 저하시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중독 성향 및 자살 생각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독이나 자살과 같은 청소년 문제의 기저에 대인관계와 사회시스템에 의해 유발된 사회적 통증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이에 근거해 중독이나 자살과 같은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개인의 자기조절 기술과 능력을 키우는 단기적인 접근, 개인의 심리적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기적인 접근,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다 근본적으로 사회적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장기적 접근을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청소년들이 직접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통증의 강도와 원인에 대해 이론적, 경험적인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사회적 통증 감소방안과 청소년의 자기조절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적 기초를 제시하려는 것이다.
-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에서 유발된 심리적 통증이 물리적 통증과 유사한 고통을 경험하도록 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러한 통증이 기존의 청소년 행동문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 또한 자기조절 프로그램과 같이 사회적 통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청소년 행동문제를 극복하도록 도울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 사회적 통증 개념에 대한 이론적 분석
- 사회적 통증이 중독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이론적·경험적 분석
- 사회적 통증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분석
- 한국 청소년이 경험하는 사회적 통증의 강도와 원인에 대한 예비조사
- 사회적 통증, 중독, 자살생각, 자기조절 역량의 관계모형을 통한 사회적 통증 관리 방안과 청소년의 자기조절 역량 증진 방안 제안

3. 주요결과

- 한국 사회의 청년들에게 사회적 배척과 통증의 원인은 대인관계보다는 한국사회 시스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에 참여한 청년들은 한국의 정치와 경제가 자신들을 가장 크게 배척하고 있다고 지각하였다.
- 심리적 통증의 원인도 대인 관계보다는 사회시스템에 의해 더 강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정치, 경제 교육 시스템이 마음의 통증을 강하게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로모형분석 결과 인간관계와 한국 사회의 시스템이 유발한 사회적 통증은 개인이 경험하는 심리적 통증(외로움, 불안, 우울)과 신체적 통증(두통, 복통, 흉통, 어깨 통증, 기타)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통증을 심하게 경험할수록 심리적 통증과 신체적 통증을 더 크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적 통증이 신체적 통증에 미치는 영향은 심리적 통증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배척으로 인해 유발된 심리적 통증이 신체적 통증을 유발한 것이다.
- 사회적 통증에 의해 유발된 심리적 통증은 자기조절 능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중독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적 통증에 의해 유발된 심리적 통증은 자기조절 능력을 감소시키고, 그 결과 자살에 대한 생각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정책제언

-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독이나 자살과 같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문제의 기저에는 인간관계와 사회적 시스템에 의해 유발된 사회적 통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따라서 중독이나 자살과 같은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접근과 함께 단계별 목표가 세분화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즉, 개인의 자기조절 기술과 능력을 키우는 단기적인 접근, 개인의 심리적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기적인 접근,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다 근본적으로 사회적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장기적 접근이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진행될 때, 비로소 문제에 대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목 차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3
2. 연구목적	4
3. 연구내용 및 방법	4
제2장 사회적 통증개념과 관련 변인들	5
1. 사회적 통증 개념의 이해	7
2. 사회적 통증 관련 개념들	8
3. 사회적 통증의 결과	10
제3장 연구 방법 및 척도	13
1. 조사 방법 및 참여자	15
2. 측정도구	16
제4장 연구 결과	21
1. 관계 유발 통증과 시스템 유발 통증의 비교	23
2. 기술 통계치와 상관분석	27
3. 경로모형 분석	29
제5장 요약 및 결론	33
참고 문헌	37
Abstract	45

표 목 차

〈표 3-1-1〉 조사참여자 분포	15
〈표 4-2-1〉 측정변인별 평균(표준편차)	27
〈표 4-2-2〉 측정변인간의 단순상관 계열 분석	28
〈표 4-3-1〉 모형적합도 지수	30

그림 목차

【그림 4-1-1】 청년들의 배척경험 실태 (대상별)	23
【그림 4-1-2】 관계 배척과 시스템 배척경험의 비교	24
【그림 4-1-3】 통증 유발정도 (대상별)	25
【그림 4-1-4】 통증 유발 정도의 차이	25
【그림 4-1-5】 통증 표정으로 측정한 대상별 사회적 통증의 강도	26
【그림 4-1-6】 관계와 시스템 통증강도의 차이	27
【그림 4-3-1】 연구가설모형	29
【그림 4-3-2】 최종 경로 모형	31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목적
3. 연구내용 및 방법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과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은 꾸준히 사회적, 정책적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청소년 보호법은 3장 24조에서 27조에 걸쳐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에 관련한 각종 규제를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청소년들의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제공시간 제한을 규정한 제26조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는 청소년들의 매체활용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소(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치료비 지원)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의 매체 과잉이용 문제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매우 중요한 정책적 주제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매체 과잉이용을 단지 매체 자체의 통제나 규제를 통해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청소년들이 매체에 과잉 몰입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하고 이를 관리하고 조절하려는 접근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청소년들의 과잉 몰입은 현재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매체에 국한된 현상으로만 나타나고 있으나 미국이나 유럽 국가의 예에서 유추할 수 있듯, 앞으로는 약물남용이나 폭력일탈행동과 같은 보다 심각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즉, 청소년들의 매체 과잉이용 문제를 매체 자체의 문제로 이해하고 매체를 제어하여 관리하려는 현재의 정책적 접근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연구들은 사회적 관계로부터 받은 상처가 유발하는 사회적 통증(social pain)이 신체적 상처가 유발하는 통증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통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예, 중독, 자살)가 있음에도 사회적 통증의 강도를 직접 측정할 연구 및 자료가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 청소년이 직접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통증의 강도와 원인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사회적 통증이 한국청소년의 판단과 의사결정, 그리고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청소년들이 의존하게 되는 행동중독(인터넷, 게임, 스마트폰)과 사회적 통증의 가장

부정적 결과인 자살이 어떻게 사회적 통증에서 비롯되는지에 대한 자료의 수집이 필요하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한국 청소년들이 직접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통증의 강도와 원인에 대해 이론적, 경험적인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사회적 통증 감소방안과 청소년의 자기조절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적 기초를 제시하려는 것이다. 즉, 이 연구에서는 관계로 인해 경험하는 심리적 통증이 물리적 통증과 유사한 고통을 경험하도록 한다는 사실과 이러한 통증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청소년 행동문제를 밝히고자 한다. 나아가서 자기조절 프로그램과 같이 사회적 통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청소년 행동문제를 극복하도록 도울 수 있는 새로운 정책적 접근의 방법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3.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통증의 원인에 대해서 파악하고, 사회적 통증이 어떻게 중독과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사회적 통증 연구들에서 주로 연구되었던 관계적 통증뿐만 아니라 사회 시스템이 유발하는 시스템 통증을 포함한 사회적 통증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과 신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결과 중독과 자살생각에 대한 자기조절 능력이 어떻게 영향 받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주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적 통증 개념에 대한 이론적 분석
- 사회적 통증이 중독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이론적·경험적 분석
- 사회적 통증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분석
- 한국 청소년이 경험하는 사회적 통증의 강도와 원인에 대한 예비조사
- 사회적 통증, 중독, 자살생각, 자기조절 역량의 관계모형을 통한 사회적 통증 관리 방안과 청소년 자기조절 역량 증진 방안 제안

제 2 장

사회적 통증개념과 관련 변인들

1. 사회적 통증 개념의 이해
2. 사회적 통증 관련 개념들
3. 사회적 통증의 결과

제 2 장

사회적 통증개념과 관련 변인들

1. 사회적 통증 개념의 이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속욕구를 가지고 집단에 소속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사고 혹은 의도하지 않은 사건 등으로 인해 의미 있는 타인과 멀어지거나 집단으로부터 배척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 안정된 사회적 관계가 생존확률을 높여준다면 반대로 사회적 배척은 생존확률을 떨어뜨리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배척을 경험한 사람들은 긴장감을 느끼게 되어 불안수준이 높아진다(Baumeister & Tice, 1990; Williams, 2001). 또한 소속욕구 충족의 실패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신체적으로 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Baumeister, DeWall, Ciarocco, & Twenge, 2005; Buckley, Winkel, & Leary, 2004; Twenge, Baumeister, Tice, & Stucke, 2001).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상실감을 경험한 사람들은 외로움, 무기력, 그리고 큰 슬픔을 느끼게 된다(Shearer & Davidhizer, 1994).

1) 통증의 기능

통증이란 실질적 또는 잠재적 조직손상과 연관된 불쾌한 감각 또는 정서적 경험을 의미한다(American Pain Society, 1992). 그리고 이 불쾌한 경험은 유기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뜨거운 물건에 접촉한 유기체는 신체적인 통증을 경험한다. 그리고 이 경험은 뜨거운 자극에 대한 경계의 신호로 작용하여 자극을 회피하도록 하고, 이 과정을 통해 유기체는 화상과 같은 더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즉 통증은 유기체의 생체에 이상이 있을 때 이를 알리는 경고신호로, 생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민병일, 1999).

2) ‘사회적 통증’ 개념의 정의

사랑하는 사람을 사고로 잃거나, 관계가 단절될 때 사람들은 흔히 ‘마음이 아프다’, ‘가슴이 찢어진다’와 같이 신체적 통증과 관련된 표현을 사용한다. 과거에는 이러한 표현을 비유정도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배척과 관련된 최근 연구들은 관계의 단절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통증은 물리적 통증과 유사한 고통을 유발한다고 보고하고 있다(Eisenberger, Lieberman, & Williams, 2003; MacDonald & Leary, 2005). 즉, 사람들은 의미있는 타인이나 집단으로부터 평가절하 당할 때, 혹은 원하는 관계로부터 배척당할 때 물리적 통증과 유사한 강도의 심리적 통증을 경험하게 되며, 이를 사회적 통증(social pain)이라고 정의하고 있다(MacDonald, Leary, 2005).

사람들이 사회적 통증을 물리적 통증과 동일하게 경험하게 된 이유는 원시시대로부터 살펴볼 수 있다. 초창기 인류에게 있어 사회적 배척은 개인의 생존에 치명적인 위협이었다. 집단에서 도태되면 생존에 필요한 먹잇감을 사냥하거나 외부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굶주리거나 위협에 노출되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다. 따라서 사람들은 배척이라는 경험을 뜨거운 물건에 접촉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고통과 연합하게 되었고, 화상을 입을 때의 통증과 마찬가지로 배척은 심리적인 통증을 유발하므로 기피해야 하는 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Krebs, Stephens, & Sutherland, 1983).

2. 사회적 통증 관련 개념들

1) 관계 유발 통증과 시스템 유발 통증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통증은 자신이 소속된 집단으로부터 경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사회적 통증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인간관계에서 직접 경험하는 배척에 주목해왔다. 즉, 타인과의 관계(예, 친구)에서 경험하는 배척이 유발하는 통증이 사회적 통증 연구의 주요 주제이며 대상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집단으로부터 경험하게 되는 통증에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시스템이 유발하는 통증도 포함된다. 즉, 사회적 시스템 때문에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다. 자신이 속한 사회의 시스템으로부터

배척당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2) 신체적 통증과 사회적 통증

사회적 배척 경험은 신체에 영향을 준다. 배척을 경험한 사람들은 혈압이 상승되고(Zadro, 2004),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코르티솔(cortisol)이라는 호르몬 수준이 증가한다(Gunnar & Quevedo, 2007). 또한, Webber와 Huxley(2004)에 의하면, 집단으로부터 고립되거나 거부된 사람들은 집단에 소속감을 느끼는 사람들에 비하여 응급실에 입원하는 빈도도 더욱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소속욕구와 사회적 통증

소속욕구란 어떤 집단에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다른 구성원들과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다(신고은, 2015). 사회적 동물(social animal)에게 집단에 소속되는 것은 생존에 필수적이다. 원시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람들은 외부위협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집단생활을 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보다 안전했다. 집단생활을 통해 위험한 짐승의 공격으로부터 서로를 보호해줄 수 있었고, 짐승을 사냥하거나 그 밖의 식량을 채집할 때에도 혼자보다 집단이 함께 하는 것이 유리했다(Baumeister & Leary, 1995). 이처럼 집단생활이 제공한 이점으로 인해 사람들은 계속해서 집단에 소속되도록 동기화되었고, 소속욕구가 강한 개체일수록 생존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었다(Brewer, 2004). 소속욕구는 자연선택과정을 통해 후손에게 전달되었고 인간을 비롯한 사회적 동물들은 생존과 번식을 위해 강력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집단을 형성하며 살게 되었다(Baumeister & Leary, 1995; Silk, Albert, & Altmann, 2003; 신고은, 2015에서 인용).

소속욕구는 외부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는 현대인에게도 필수적이다. 현대인들은 생존 그 이상을 위해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간다. 또래관계를 통해 우정을 쌓고 가족과 배우자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게 된다. 따라서 생존을 위한 관계가 아니더라도 타인과 가깝고 따뜻하며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자하고, 갈등이 생길 때 관계를 회복, 유지하려는 사회적 동기를 가지게 된다(McClelland, 1987; 신고은, 2015에서 인용). 안정적인 사회적 관계는 사람들의 안녕감을 높여주고, 스트레스 사건에 대해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하며, 반사회적인

행동이나 범죄관련 행동을 덜 하게 한다(Baumeister, 1991;Cohen, Sherrod, & Clark, 1986; Sampson & Laub, 1993; 김혜림, 2014에서 인용).

3. 사회적 통증의 결과

사회적으로 배척당한 사람들은 그 배척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즉 자신을 배척했던 집단이나 혹은 다른 집단에 다시 받아들여지기를 갈망한다. 그러나 사회적 배척 경험은 그 자체로 배척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즉, 배척당한 경험은 친사회적 행동 감소, 공격행동 증가, 자기조절 능력 손상 및 중독행동 등 다양한 부적응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부적응적인 행동반응들은 배척을 당한 사람이 집단에 다시 수용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배척의 여러 행동문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1) 친사회적 행동과 공격행동

협동, 도움행동, 기부와 같은 친사회적 행동은 집단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김주영, 2015). 친사회적 행동은 사회적 수용과 높은 상관을 보이며 안정된 사회적 관계의 형성은 친사회적 행동을 촉진한다(Parkhurst & Asher, 1992; Schonert-Reichl, 1999). 그러나 타인으로부터 거절을 경험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Cacioppo, Hawkley, & Berntson, 2003). 그 결과 사회적 배척 경험은 친사회적 행동의 감소를 유발한다(Twenge, Baumeister, DeWall, Ciarocco, & Bartels, 2007). 또한 사회적 배척으로 인한 통증은 생존에 위협을 경험하게 만들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위협을 받게 되면 이에 대한 방어행동으로 공격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Buckley, Winkel, & Leary, 2004; Twenge et al, 2001).

2) 자기조절 능력 손상 및 중독행동

사회적 배척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조절 능력도 악화되어 자기 파괴적 행동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Baumeister, DeWall, Ciarocco & Twenge, 2005). 실제로 사회적 배척을 경험한 사람들은 집단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보다 위험한 일에 더 쉽게 뛰어들고,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더 많이 선택한다(Twenge, Catanese, & Baumeister, 2002). 따라서 사회적 배척은 장기적으로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으나 순간적인 쾌락을 경험할 수 있는 약물, 게임, 알코올 중독 등에 취약하게끔 만들 수 있다.

특히, 타인으로부터 거절을 경험한 사람들은 집단에 소속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가지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적 관계의 기회를 추구하거나, 사회적 지지의 대상을 탐색하게 된다(Dewall, Maner, & Rouby, 2009; Maner, Dewall, Baumeister, & Schaller, 2007). 그러나 사회적 관계로부터 거절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고 부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즉, 배척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들의 성향으로 인해 현실세계에서 건강한 관계를 통해 수용과 위안의 감정을 느끼기가 어려울 것이다(Sadava & Thompson, 1986). 따라서 타인으로부터 수용되기 쉬운 성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가상의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인터넷 중독에 빠지기가 쉽다(Young, 1998).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스마트폰 중독 현상 역시 같은 맥락으로 살펴볼 수 있다. 스마트폰은 인터넷이 가능한 휴대전화의 형태로 스마트폰 중독은 인터넷 중독의 일종으로 정의되며(신광우, 김동일, 정여주, 2011), 관계로부터 고통을 받고 가상의 관계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스마트폰 사용에 중독될 가능성이 크다.

3) 자살 행동

청소년의 자살을 예측할 수 있는 데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또래관계의 문제가 영향을 미친다고 예측해 볼 수 있다. 또래란 연령, 성별, 학년의 수준에서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정신적, 신체적 발달이 유사하고, 사회적으로 동일시되어 일상적으로 함께 상호작용할 수 있는 대상을 말한다(Perry & Bussey, 1984).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독립을 시작하는 시기로 이전보다 넓은 사회적 접촉을 시도하게 되며,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또래관계를 통해 의사소통 기술과 갈등 해결 기술을 배우게 된다(Helsen, Vollebergh, & Meeus, 2000; 신고은, 2015에서 인용).

청소년기에 또래는 가족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므로 큰 사회적 압력을 받게 된다. 친구들과 건강한 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면 외로움에 직면하게 하고(Asher & Wheeler, 1985), 이후 발달에서도 정신병리, 비행, 범죄행동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Parker & Asher, 1987). 특히, 또래관계에서 겪게 되는 심리적 스트레스는 청소년들의 심각한 무력감이나 우울, 사회적 부적응을 겪을 수 있도록 하며 심각하게는 자살에 대한 생각과 실제 자살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Fekkes, Pijper, & Verloove-Vanhorick, 2004; Kim, Koh, & Leventhal, 2005; Twemlow & Fonagy, 2005).

제 3 장

연구 방법 및 척도

1. 조사 방법 및 참여자
2. 측정도구

제 3 장

연구 방법 및 척도

1. 조사 방법 및 참여자

예비조사는 충남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를 통해 확정된 문항을 사용해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온라인 전문조사기관이 보유중인 전국의 청년패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온라인 조사를 통해서 특정 지역이 아닌 한국에 거주 중인 20대와 30대 청년 표집을 확보할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본조사에 참여한 청년은 총 268명이었다. 연령에 따른 분포를 살펴본 결과, 10대 참여자(37%)보다 20대 참여자(63%)가 더 많았다. 성별에 따른 분포를 살펴본 결과, 남성 참여자(38%)보다 여성 참여자(62%)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성별에 따른 분포는 <표 3-1-1>에 제시하였다.

표 3-1-1 조사참여자 분포

연령	사례수	비율(%)
10-19세	98	100
남성	31	31.6
여성	67	68.4
20-29세	170	100
남성	71	41.8
여성	99	58.2
전체	268	100

2. 측정도구

1) 관계 유발 통증 척도

인간관계(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친한 친구, 동료)에서 유발된 통증을 측정하기 위해서 인간관계로부터 배척당한 경험, 관계가 유발한 통증의 아픔 정도, 그리고 관계가 유발한 통증의 표정 강도를 측정하였다.

- 관계적 배척 경험 : 인간관계의 대상(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친한 친구, 동료)으로부터 얼마나 배척당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7점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하였다(1=전혀 배척당하지 않았다, 7:매우 심하게 배척당했다).
- 관계적 통증 : 인간관계의 대상(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친한 친구, 동료)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정도에 대하여 0~100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모든 척도는 10점단위로 구성하였다(0:전혀 아프게 하지 않음, 100:매우 아프게 함).
- 관계적 통증 표정: 인간관계(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친한 친구, 동료)로부터 경험하는 주관적 통증을 측정하기 위하여 Brieri 등(1990)이 개발한 Face Pain Scale을 사용하였다. Face Pain Scale은 개인의 주관적 통증을 얼굴 표정을 통해 측정하는 척도이다. 이 척도에서 얼굴은 웃는 얼굴부터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얼굴까지 7개의 표정이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자는 특정 사건이나 현재 질병으로 인한 통증을 가장 잘 표현하는 표정을 선택할 수 있다. Face Pain Scale은 7개의 얼굴표정을 0점부터 6점까지 단계별로 점수 매기며, 높은 점수일수록 더 통증이 심한 것으로 해석한다. 최근에는 6개의 얼굴표정으로 재구성한 수정판이 사용되고 있다(Hicks, Baeyer, Spafford, Korlaar, & Goodenough, 2001). 본 연구에서는 Hicks(2001)등이 수정한 6개의 얼굴로 구성된 척도를 제시하였다.

2) 시스템 유발 통증

개인이 사회적 시스템으로부터 경험한 배척의 정도와 이로 인해 유발된 통증의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참여자들에게 소속단체(학교, 직장), 국가(대한민국), 한국사회, 한국문화, 한국교육, 한국경제, 한국정치라는 사회적 시스템이 유발한 통증을 측정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사회적 시스템으로부터 배척당한 경험, 시스템이 유발한 통증의 아픔 정도, 그리고 시스템이 유발한 통증의 표정 강도를 측정하였다.

- 시스템 배척경험: 한국의 사회적 시스템으로부터 얼마나 배척당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7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1=전혀 배척당하지 않았다, 7:매우 심하게 배척당했다).
- 시스템 통증: 한국의 사회적 시스템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정도에 대하여 0~100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모든 척도는 10점단위로 구성하였다(0:전혀 아프게 하지 않음, 100:매우 아프게 함).
- 시스템 통증표정: 한국의 사회 시스템으로 유발된 주관적 통증을 측정하기 위하여 Brieri 등(1990)이 개발하고 Hicks(2001)등이 수정한 Face Pain Scale을 사용하였다.

3) 심리적 통증

사람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통증은 외로움, 불안, 우울에 대한 측정을 통해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 외로움: 사람들이 경험하는 외로움은 UCLA loneliness scale(Russell, 1996; 김옥수, 1997)을 통해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이 경험하는 외로움을 정도를 측정하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부록 3 참조). 10문항은 사회적 관계의 긍정적인 방향에 대해 측정하고(예, 나는 내 주위 사람들과 기분이 통한다.) 나머지 10문항은 사회적 관계의 부정적인 방향에 대해 측정한다(예, 나는 사람들과 교제가 부족하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긍정적 방향 10문항을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외로움의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 불안, 우울: 한국 정보화 진흥원(2011)에서 개발한 스마트폰 중독 진단도구의 공존병리 척도 중 불안, 우울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이용하였다. 불안척도는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예, 나는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한다),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 우울척도는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예, 정말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

4) 신체적 통증

신체적 통증을 측정하기 위하여 평소 경험한 신체적 통증의 정도를 7점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하였다(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 신체적 통증의 종류는 두통, 복통, 흉통, 어깨통 그리고 기타부위가 자주 아픈지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5) 자기조절

자기조절 능력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Twenge, Muraven, 그리고 Tice(2004)가 개발한 자기조절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예, 정신적으로 지쳐있다.), 5점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하였다(1:전혀 그렇지 않다, 5:정말 그렇다).

6) 중독(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한국 정보화 진흥원(2011)에서 개발한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도(K-척도)와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S-척도)를 이용하였다. 인터넷 중독척도는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예,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학교성적(업무 실적)이 떨어졌다), 4점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 스마트폰 중독 척도는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예,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학교성적이나 업무능률이 떨어진다), 4점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

7) 자살생각

평소 자살에 대하여 얼마나 자주 생각하는지 확인해보기 위하여 “당신이 자살에 대해 생각하는 빈도를 표시 하세요.”라는 문항에 7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1:전혀 생각하지 않음, 7:매우 자주 생각함).

제 4 장

연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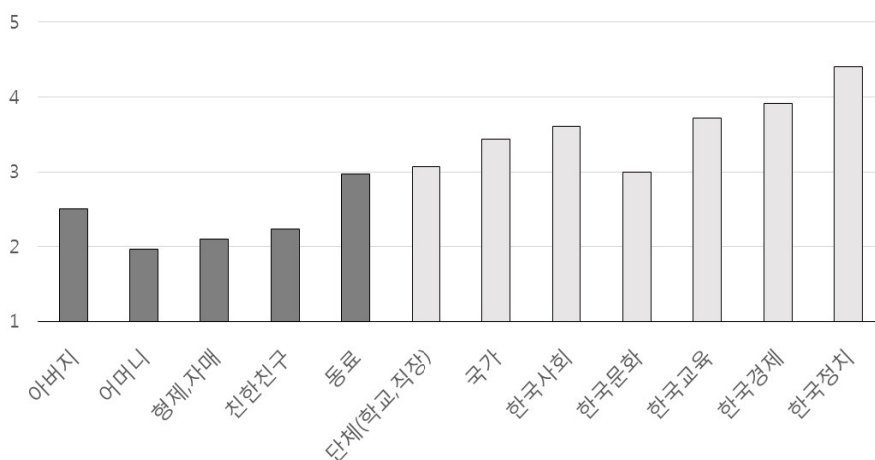
1. 관계 유발 통증과 시스템 유발
통증의 비교
2. 기술 통계치와 상관분석
3. 경로모형 분석

제 4 장 연구 결과

1. 관계 유발 통증과 시스템 유발 통증의 비교

1) 배척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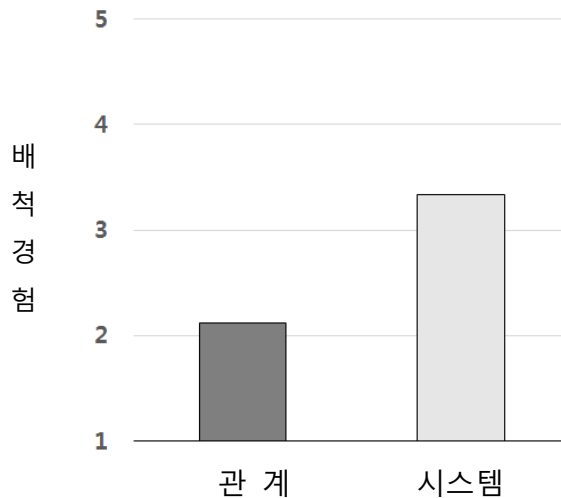
조사 대상자들이 어떤 대상으로부터 가장 많이 배척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회적 관계(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친한 친구, 동료)와 사회적 시스템(소속단체(학교, 직장), 국가(대한민국), 한국사회, 한국문화, 한국교육, 한국경제, 한국정치)으로부터 얼마나 배척당했다고 생각하는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그림 4-1-1】에서 볼 수 있듯이, 관계적 대상 중에는 특히 동료로부터 가장 많은 배척을 경험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아버지로부터 배척을 많이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친한 친구, 형제/자매, 어머니 순서로 배척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1】 청년들의 배척경험 실태 (대상별)

사회적 시스템 중에서는 한국정치로부터 가장 많은 배척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한국경제로부터 배척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한국교육과 한국사회로부터 유사한 수준의 배척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사회적 시스템 중에서는 한국문화로부터 가장 배척을 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1】에서 볼 수 있듯이 조사 대상자들은 전반적으로 인간관계로부터 경험한 배척보다는 한국 사회의 시스템으로부터 받은 배척의 정도를 더 크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사회적 관계(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친한 친구, 동료)가 유발한 배척의 평균과 사회적 시스템(소속단체(학교, 직장), 국가(대한민국), 한국사회, 한국문화, 한국교육, 한국경제, 한국정치)이 유발한 배척의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그림 4-1-2】에서 볼 수 있듯이, 조사 대상자들은 인간관계가 유발한 배척보다는 한국 사회의 시스템이 유발한 배척의 정도를 더 크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267)=18.62$,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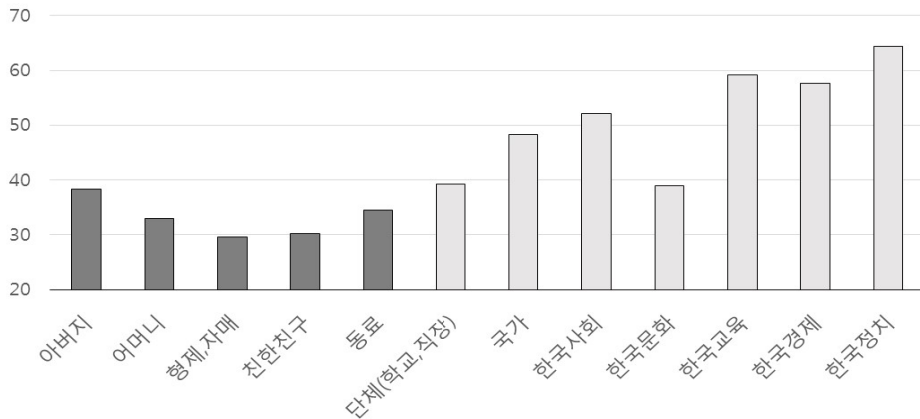


【그림 4-1-2】 관계 배척과 시스템 배척경험의 비교

2) 통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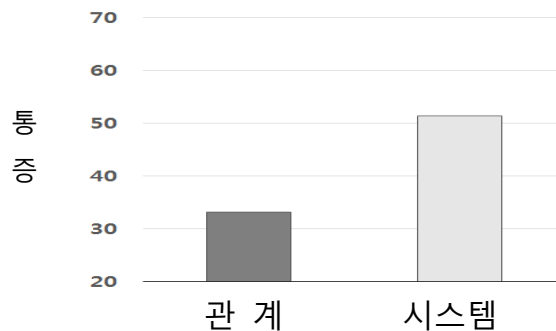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시스템이 조사 대상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정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그림 4-1-3】에 제시된 것처럼, 인간관계의 대상으로부터 경험한 마음의 통증은 아버지로부터 가장 심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동료와 어머니, 친한

친구와 형제/자매 순으로 조사 대상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시스템의 경우에는, 한국의 정치가 조사 대상자들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만든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의 교육과 경제가 그 다음으로 통증을 가장 크게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한국사회, 국가, 단체, 마지막으로 한국문화의 순서로 조사 대상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4-1-3】 통증 유발정도 (대상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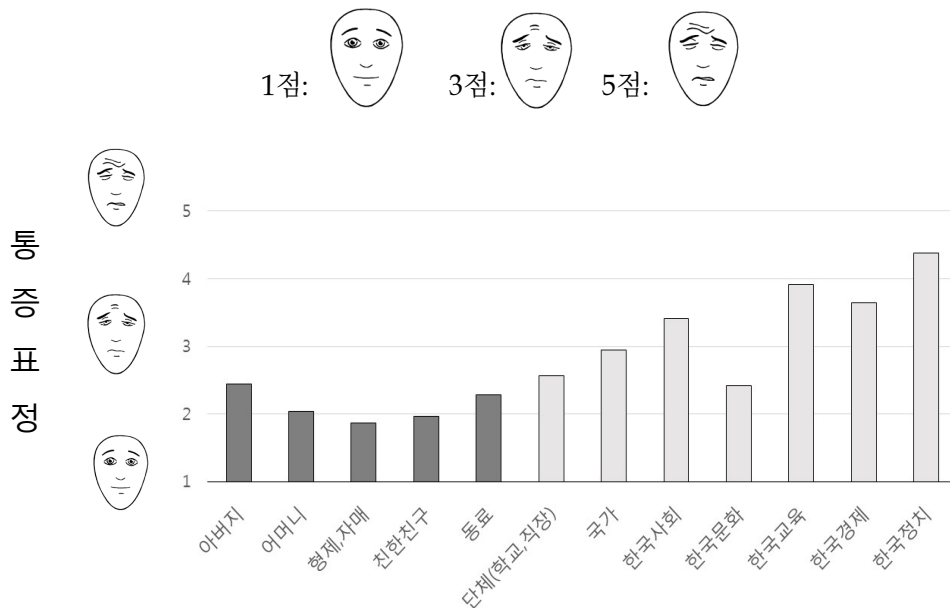
【그림 4-1-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조사 대상자들은 전반적으로 인간관계로부터 경험한 통증보다는 한국 사회의 시스템으로 인해 경험한 통증의 정도를 더 크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사회적 관계 대상이 유발한 통증의 평균과 한국 사회의 시스템이 유발한 통증의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그림 4-1-4】에서 볼 수 있듯이 관계가 유발한 아픔보다 한국 사회의 시스템이 유발한 아픔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t(267)=13.55,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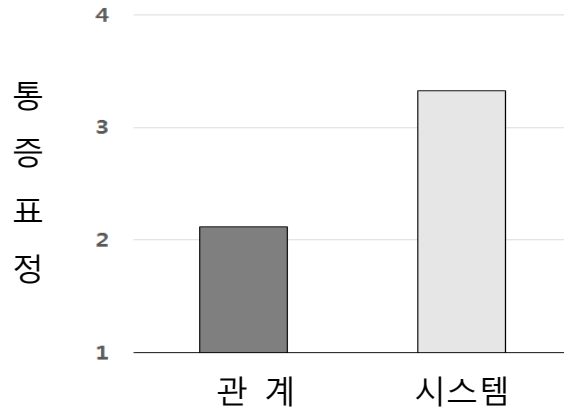
【그림 4-1-4】 통증 유발 정도의 차이

3) 통증 표정과 통증의 강도

Face Pain Scale을 통해 측정한 통증의 결과, 【그림 4-1-5】에 제시된 것처럼, 인간관계의 대상으로부터 경험한 마음의 통증은 아버지의 경우에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동료, 어머니, 친한 친구, 형제/자매의 순서로 통증을 강하게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시스템의 경우에는, 한국의 정치가 가장 큰 통증을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한국교육과 경제가 통증을 강하게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한국사회, 국가, 단체, 한국문화 순으로 통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5】 통증 표정으로 측정한 대상별 사회적 통증의 강도



【그림 4-1-6】 관계와 시스템 통증강도의 차이

통증 표정의 경우에도 이전 결과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시스템으로부터 경험한 통증의 평균이 관계로부터 경험한 통증의 평균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267)=15.80$, $p<.001$ (그림 6).

2. 기술 통계치와 상관분석

각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는 <표 4-2-1>에 제시하였다.

표 4-2-1 측정변인별 평균(표준편차)

변인 구분		평균	표준편차
심리적 통증	외로움	2.18	0.53
	불안	2.58	0.65
	우울	2.07	0.65
신체적 통증	두통	3.59	1.84
	복통	3.71	1.87
	흉통	2.83	1.66
	어깨통증	4.13	1.93
	기타	3.31	1.83
중독 성향	인터넷중독	2.17	0.45
	스마트폰중독	2.20	0.54
자기조절		2.86	0.66
자살생각빈도		2.31	1.60

각 측정변인간의 관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배척 관련 변인, 심리적 통증, 신체적 통증, 그리고 자살생각 빈도 모두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적 변인들과 자기조절 점수는 부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별 상관계수는 <표 4-2-2>에 제시하였다.

표 4-2-2 측정변인간의 단순상관 계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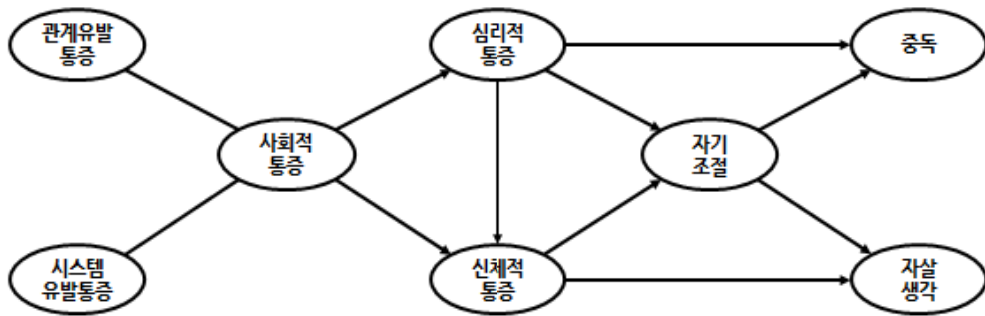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성별	1														
2.연령대	-.10	1													
3.관계적 배척	.02	-.02	1												
4.관계적 통증	.16*	-.06	.60**	1											
5.관계적 통증표정	.18**	-.05	.42**	.64**	1										
6.시스템 배척	-.01	-.05	.49**	.39**	.26*	1									
7.시스템 통증	.02	-.05	.26**	.44**	.30**	.58**	1								
8.시스템 통증표정	-.02	.04	.10	.15*	.25**	.41**	.67**	1							
9.외로움	.01	-.01	.42**	.40**	.34**	.27**	.24**	.20**	1						
10.불안	.08	-.10	.19**	.29**	.25**	.23**	.30**	.22**	.49**	1					
11.우울	.03	-.04	.32**	.40**	.35**	.30**	.26**	.21**	.59**	.65**	1				
12.인터넷 중독	.05	-.10	.09	.08	.06	.06	.05	.03	.11	.17**	.21**	1			
13.스마트폰 중독	.23**	-.03	.07	.08	.10	.04	.09	.10	.24**	.31**	.24**	.56**	1		
14.자기조절	-.15*	.07	-.25**	-.33*	-.29**	-.23**	-.31**	-.18**	-.62**	-.57**	-.58**	-.26**	-.45**	1	
15.신체적 통증	.19*	-.05	.13*	.37**	.31**	.30**	.29**	.17**	.33**	.48**	.49**	.16**	.19**	-.48**	1
16.자살생각	.05	-.11	.35**	.47*	.40**	.29**	.38**	.27**	.45**	.34**	.57**	.13*	.12	-.47**	.44**

* $p < .05$, ** $p < .01$

3. 경로모형 분석

1) 가설 모형

본 연구에서 상정한 변인간의 관계에 대한 경로분석 모형은 【그림 4-3-1】과 같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가정하는 변인들 간의 관계는 다음 가설과 같다.



【그림 4-3-1】 연구가설모형

- 가설 1. 사회적 통증이 심할수록 심리적 통증이 심할 것이다.
- 가설 2. 사회적 통증이 심할수록 신체적 통증이 심할 것이다.
- 가설 3. 사회적 통증과 신체적 통증의 관계는 심리적 통증이 매개할 것이다.
- 가설 4. 심리적 통증이 심해질수록 자기조절 능력이 저하될 것이다.
- 가설 5. 신체적 통증이 심해질수록 자기조절 능력이 저하될 것이다.
- 가설 6. 자기조절 능력이 저하될수록 중독에 빠지기 쉬울 것이다.
- 가설 7. 자기조절 능력이 저하될수록 자살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할 것이다.

2) 모형 분석

(1) 모형 적합도

가설모형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적합성 지수를 <표 4-3-1>에 제시하였다. 적합도 지수들을 살펴본 결과,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표 4-3-1 모형적합도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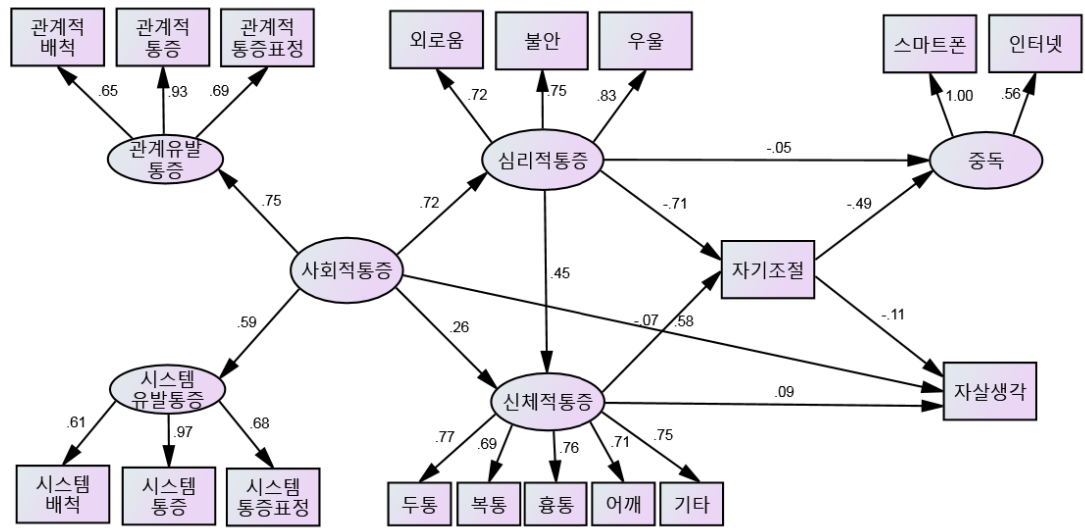
χ^2	CFI	NFI	GFI	RMSEA
324.12	.909	.861	.887	.077

(2) 가설검증

분석결과, 【그림 4-3-1】에 제시한 것처럼, 인간관계와 한국사회의 시스템이 유발한 사회적 통증이 심리적 통증(외로움, 불안, 우울)과 신체적 통증(두통, 복통, 흉통, 어깨 통증, 기타)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통증이 심할수록 심리적 통증이 심해지고($\beta=.72, p<.05$), 신체적 통증이 심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beta=.26, p<.05$). 또한 사회적 통증과 신체적 통증의 관계는 심리적 통증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통증에 대한 사회적 통증을 총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고($\beta=.58, p<.01$), 그 중 사회적 통증이 신체적 통증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심리적 통증을의 간접효과($\beta=.32, p<.01$)를 통제한 후에는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6, p<.05$). 이를 통해 사회적 배척으로 인해 경험하는 신체적 통증을 심리적 통증을 통하여 유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리적 통증을 자기조절 능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71, p<.001$). 특히, 심리적 통증으로 인한 자기조절 능력의 저하는 중독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통증이 중독에 미치는 총 효과($\beta=.31,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고, 자기조절의 간접효과($\beta=.24, p<.05$)를 통제한 후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05, p=.77$). 즉, 심리적 통증이 심해질수록 중독에 빠질 위험도 커지고 이 관계는 배척으로 인한 자기조절 능력의 저하로 인해 유발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신체적 통증과 자기조절

능력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7, p=.35$). 자기조절 능력은 자살에 대한 생각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7, p=.10$). 그러나 사회적 통증과 자살에 대한 생각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58, p<.05$). 즉, 관계적 배척과 시스템 유발 배척으로 인해 통증을 더 많이 경험할수록 자살에 대한 생각을 더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2】 최종 경로 모형

제 5 장



요약 및 결론

제 5 장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발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조사 대상자들(10대, 20대 청소년)은 자신의 인간관계보다는 한국사회의 시스템으로부터 더 강하게 배척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정치와 경제가 자신들을 가장 크게 배척하고 있다고 지각하였다.
- 마음의 통증도 인간관계보다는 한국사회의 시스템에 의해 더 강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정치, 경제 교육 시스템이 마음의 통증을 강하게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 사회의 시스템이 유발하는 통증의 강도는 얼굴 표정으로 에서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 청년들은 한국 사회의 시스템으로부터 중등도 이상의 통증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모형분석 결과 인간관계와 한국 사회의 시스템이 유발한 사회적 통증은 개인이 경험하는 심리적 통증(외로움, 불안, 우울)과 신체적 통증(두통, 복통, 흉통, 어깨 통증, 기타)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통증을 심하게 경험할수록 심리적 통증과 신체적 통증을 더 크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적 통증이 신체적 통증에 미치는 영향은 심리적 통증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배척으로 인해 유발된 심리적 통증이 신체적 통증을 유발한 것이다.
- 사회적 통증에 의해 유발된 심리적 통증은 자기조절 능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중독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적 통증에 의해 유발된 심리적 통증은 자기조절 능력을 감소시키고, 그 결과 자살에 대한 생각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들은 중독이나 자살과 같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문제의 기저에는 인간관계와 사회적 시스템에 의해 유발된 사회적 통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따라서 중독이나 자살과 같은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접근과 함께 단계별 목표가 세분화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즉, 개인의 자기조절 기술과 능력을 키우는 단기적인 접근, 개인의 심리적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기적인 접근,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다 근본적으로 사회적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장기적 접근이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진행될 때, 비로소 문제에 대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약 250명에 불과하다. 한국 사회의 청소년을 대표하기에는 매우 적은 표본이다. 현재의 결과를 한국의 청소년 집단에 일반화하기에는 매우 큰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 따라서 이후의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청소년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과연 사회적 통증이 한국의 청년들의 중독과 자살 생각을 포함하는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 더 나아가 이러한 연구의 발견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통증의 원인과 경험 과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 김옥수 (1997). 한국어로 번역된 UCLA 외로움 사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조사. 대한간호학회지, 27, 871-879.
- 김주영 (2015). 사회적 배척이 무게지각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림 (2014). 물리적 따듯함에 대한 생각이 심리적 따듯함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민병일 (1999). 통증과 통증제어 기전. 대한내과학회지, 57(4), 622-626.
- 신광우, 김동일, 정여주. (2011). 스마트폰 중독 진단척도 개발 연구. 서울: 한국정보화진흥원.
- 신고은 (2015). 애완동물 접화가 소속욕구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merican pain society (1992). Clinical Practice Guideline for Management of Pain in Osteoarthritis, Rheumatoid Arthritis, and Juvenile Chronic Arthritis(2nd ed). Glenview, IL : American pain Society.
- Asher, S. R., & Wheeler, V. A. (1985). Children's loneliness: A comparison of rejected and neglected peer statu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 500-505.
- Baumeister, R. F. (1991). Meanings of life. Guilford Press.
-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3), 497-529.
- Baumeister, R. F., & Tice, D. M. (1990). Point-counterpoints: Anxiety and social exclusio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9(2), 165-195.
- Baumeister, R. F., DeWall, C. N., Ciarocco, N. J., & Twenge, J. M. (2005). Social exclusion impairs self-reg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 Psychology, 91, 88(4), 589–604.
- Bieri, D., Reeve, R. A., Champion, G. D., Addicoat, L., & Ziegler, J. B. (1990). The Faces Pain Scale for the self-assessment of the severity of pain experienced by children: development, initial validation, and preliminary investigation for ratio scale properties. *Pain*, 41(2), 139–150.
- Brewer, M. B. (2004). Taking the social origins of human nature seriously: Toward a more imperialist social psycholog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8(2), 107–113.
- Buckley, K. E., Winkel, R. E., & Leary, M. R. (2004). Reactions to acceptance and rejection: Effects of level and sequence of relational evalu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0(1), 14–28.
- Cacioppo, J. T., Hawkey, L. C., & Berntson, G. G. (2003). The anatomy of lonelines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2(3), 71–74.
- Cohen, S., Sherrod, D. R., & Clark, M. S. (1986). Social skills and the stress-protective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1, 50(5), 963–973.
- DeWall, C. N., Maner, J. K., & Rouby, D. A. (2009). Social exclusion and early-stage interpersonal perception: selective attention to signs of accept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6(4), 729–741.
- Eisenberger, N. I., Lieberman, M. D., & Williams, K. D. (2003). Does rejection hurt? An fMRI study of social exclusion. *Science*, 302(5643), 290–292.
- Fekkes, M., Pijpers, F. I., & Verloove-Vanhorick, S. P. (2004). Bullying behavior and associations with psychosomatic complaints and depression in victims. *The Journal of Pediatrics*, 144(1), 17–22.
- Gunnar, M., & Quevedo, K. (2007). The neurobiology of stress and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8, 145–173.
- Helsen, M., Vollebergh, W., & Meeus, W. (2000). Social support from parents and friends and emotional problems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3), 319–335.

- Hicks, C. L., von Baeyer, C. L., Spafford, P. A., van Korlaar, I., & Goodenough, B. (2001). The Faces Pain Scale-Revised: toward a common metric in pediatric pain measurement. *Pain*, 93(2), 173–183.
- Kim, Y. S., Koh, Y. J., & Leventhal, B. (2005). School bullying and suicidal risk in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Pediatrics*, 115(2), 357–363.
- Krebs, J. R., Stephens, D. W., & Sutherland, W. J. (1983). 6 Perspectives in optimal foraging. In *Perspectives in Ornithology: Essays Presented for the Centennial of the American Ornithologists' Union* (p. 165).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cDonald, G., & Leary, M. R. (2005). Why does social exclusion hurt?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nd physical pain. *Psychological Bulletin*, 131(2), 202–223.
- Maner, J. K., DeWall, C. N., Baumeister, R. F., & Schaller, M. (2007). Does social exclusion motivate interpersonal reconnection? Resolving the “porcupine probl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1), 42–55.
- McClelland, D. C. (1987). *Human Motiva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rker, J. G., & Asher, S. 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3), 357–389.
- Parkhurst, J. T., & Asher, S. R. (1992). Peer rejection in middle school: Subgroup differences in behavior, loneliness, and interpersonal concerns. *Developmental Psychology*, 28(2), 231–241.
- Perry, D. G., & Bussey, K. (1984). *Social Development*.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NJ.
- Russell, D. W. (1996). UCLA Loneliness Scale (Version 3): Reliability, validity, and factor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6(1), 20–40.
- Sadava, S. W., & Thompson, M. M. (1986). Loneliness, social drinking, and vulnerability to alcohol problems.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Revue canadienne des sciences du comportement*, 18, 133–139.

- Sampson, R. J., & Laub, J. H. (1993). Structural variations in juvenile court processing: Inequality, the underclass, and social control. *Law and Society Review*, 285–311.
- Schonert-Reichl, K. A. (1999). Relations of peer acceptance, friendship adjustment, and social behavior to moral reasoning during early adolescence.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9(2), 249–279.
- Shearer, R., & Davidhizar, R. (1994). It can never be the way it was: Helping elderly women adjust to change and loss. *Home Healthcare Nurse*, 12, 60–65.
- Silk, J. B., Alberts, S. C., & Altmann, J. (2003). Social bonds of female baboons enhance infant survival. *Science*, 302(5648), 1231–1234.
- Twemlow, S. W., & Fonagy, P. (2005). The prevalence of teachers who bully students in schools with differing levels of behavioral problem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2(12), 2387–2389.
- Twenge, J. M., Baumeister, R. F., DeWall, C. N., Ciarocco, N. J., & Bartels, J. M. (2007). Social exclusion decreases prosocial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1), 56–66.
- Twenge, J. M., Baumeister, R. F., Tice, D. M., & Stucke, T. S. (2001). If you can't join them, beat them: effects of social exclusion on aggressiv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6), 1058–1069.
- Twenge, J. M., Catanese, K. R., & Baumeister, R. F. (2002). Social exclusion causes self-defeating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3), 606–615.
- Twenge, J. M., Muraven, M., & Tice, D. M. (2004). Measuring state self-control: Reliability, validity, and correlations with physical and psychological stress. Unpublished manuscript, San Diego State University.
- Webber, M., & Huxley, P. (2004). Social exclusion and risk of emergency compulsory admission. A case-control study.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39(12), 1000–1009.
- Williams, K. D. (2001). *Ostracism: The Power of Silence*. New York: Guilford.

- Young, K. S. (1998). Internet addiction: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 *CyberPsychology & Behavior*, 1, 237–244.
- Zadro, L. (2004). Ostracism: Empirical studies inspired by real-world experiences of silence and exclusion. PhD thesis. Univ. New South Wales. 294pp.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status and causes of social pain and social exclusion experienced by Korean youth. As results, subjects experienced the pain of rejection from social and public system, rather than from interpersonal relationships. Korean youth perceives themselves as socially excluded from their political and economical system most severely. Social pain path using the relevant variables in the model results interpersonal and community social pain systems causing psychological pain to personal experiences (loneliness, anxiety, depression) and physical pain (headache, abdominal pain, chest pain, shoulder pain, etc) It was significantly predictive. In other words, the more severe the pain was psychological experience of social pain and physical pain keot experience more psychological pain is caused by social exclusion appeared to have caused physical pain. In addition, the psychological pain caused by social pain has been estimated to increase by reducing the self-regulation skills smart phone or internet addiction and suicide rat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e presence of social pain caused by poisoning or suicide, such as youth underlying interpersonal problems and social systems. In evidence to addiction or a short-term approach to raise an individual's self-regulation skills and ability to solve social problems such as suicide, medium-term approach to reduce the psychological pain of the person, and finally more fundamentally to hover reduce the social pain It concluded that take into account the long-term approach.

2015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5-R01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및 개선방안 / 이경상 · 조용하
- 15-R02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Ⅱ / 최창욱 · 문호영 · 김진호
- 15-R02-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Ⅱ - 기초분석보고서 / 최창욱 · 문호영
- 15-R03 청소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소셜 미디어 활용 연구 / 배상률
- 15-R04 지역사회 청소년의 인성교육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 임지연 · 김영석 · 김혁진
- 15-R05 청소년수련시설 역할 재정립 및 정체성 확립 방안 연구 / 김형주 · 김정주 · 김인규
- 15-R06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 방안 / 김기현 · 황세영 · 이경자 · 강영배
- 15-R07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 황여정 · 김정숙 · 이수정 · 변정현
- 15-R08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 김지경 · 정연순
- 15-R09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 백혜정 · 송미경
- 15-R10 아동 · 청소년 · 가족 보호체계 개선방안 연구 / 김지연 · 좌동훈 · 박세경 · 한미경
- 15-R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Ⅴ : 총괄보고서 / 김영지 · 김희진 · 이민희 · 박선영
- 15-R1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Ⅴ : 청소년 인권의식과 시민적 권리의 경험에 대한 관련 요인 분석 / 김진석
- 15-R11-2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Ⅴ : 2015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영지 · 김희진
- 15-R1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총괄보고서 / 김영한 · 오해섭 · 성윤숙 · 정윤미
- 15-R12-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운영
과 추진전략 개발 / 오해섭 · 김세광
- 15-R12-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진단 /
성윤숙 · 홍성호
- 15-R12-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청소년정책모니터단 운영 연구 / 김영한 · 정윤미
- 15-R13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Ⅲ : 총괄보고서 / 김현철 · 모상현 · 오성배
- 15-R13-1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Ⅲ : 기초분석보고서 / 김현철 · 모상현
- 15-R1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Ⅱ : 위기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
이유진 · 박선영
- 15-R14-1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Ⅱ :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모형 개발 및 창업 활성화 방안 /
강경균 · 이춘우
- 15-R15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Ⅰ / 김경준 · 김태기
- 15-R15-1 외국의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 비교 연구 / 이진영 · 장안리 · 김판준 · 임영연 · 정호원 · 성일광
- 15-R16 한국 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Ⅵ : 사업보고서 / 이종원 · 서정아 · 정은주 · 강현철 · 한영근
- 15-R16-1 한국 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Ⅵ : 데이터분석보고서Ⅰ -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이 청소년 행복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 / 서정아

15-R16-2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Ⅵ : 데이터분석보고서2 - 청소년의 또래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 / 정은주

협동연구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1-01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 윤철경·최인재·유성렬·김강호 (자체번호 15-R1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1-02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 전영실·김지영·박성훈 (자체번호 15-R17-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1-0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 조사결과자료집 / 윤철경·최인재 (자체번호 15-R17-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최홍일·진성희·김균희 (자체번호 15-R1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초·중·고등학생용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최홍일·진성희·김균희 (자체번호 15-R18-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대학생용 기초통계 분석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최홍일·진성희·김균희 (자체번호 15-R18-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청소년의 사회참여 역량 측정도구 개발 및 분석 연구 / 김태준·오민아·이영훈 (자체번호 15-R18-3)

연구개발적립금

15-R19 동북아 청소년정책 국제비교 연구 / 김정숙·김기현·황세영

15-R20 대학비전학 청소년 역량개발 정책사업 추진방안 연구 / 윤민중·김기현·한도희

수 시 과 제

15-R21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방안 연구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과제 개발 기초연구 / 김영지·김희진

15-R22 '사회적 통증' 개념을 통한 청소년 정신건강 이해 : 중독과 자살생각 / 장근영·전우영

15-R23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 황세영·조성화

15-R23-1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워크북 / 황세영·조성화·곽정남·김경전·현명주

15-R24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현황과 전망 : 생애과정 연구를 중심으로 / 김현철

15-R25 동북아 청소년연구 분류체계 구축 연구 / 김정숙·김기현

15-R2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현안과 의제 / 김지연

- 15-R27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운영 실태와 확대방안 연구 / 좌동훈
- 15-R28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청소년 삶의 질 정책방안 연구 / 김기현 · 좌동훈 · 강경균 · 김정숙 · 황세영 · 문호영 · 윤민중
- 15-R29 의료형 청소년쉼터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 김지연
- 15-R30 학교와 지역사회 청소년체험활동 연계모형 평가 연구 / 김기현 · 김형주
- 15-R31 국가근로장학사업으로서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운영체계의 개선 - 대학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 김지경 · 윤민중
- 15-R32 청소년운영위원회 연간활동 효율화 방안 연구 / 최창욱 · 좌동훈
- 15-R33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기준 개발 / 이경상 · 장원경
- 15-R34 청소년분야 ODA 사업추진 기본방향 마련 / 최창욱 · 한도희
- 15-R35 생애주기에 따른 아동 · 청소년 · 청년 연령구분 실태와 방향 / 문호영 · 최창욱

수 탁 과 제

- 15-R36 청소년활동 중장기 수요 및 공급기반 조성 연구 / 김영한 · 유성렬 · 임성택 · 주동범
- 15-R37 2014년도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적용 게임물 평가 / 배상률 · 유홍식 · 김동일
- 15-R38 201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 · 이유진 · 김영한
- 15-R39 2015년 행복교육 학생모니터단 운영 / 오해섭 · 최홍일
- 15-R40 가출 청소년 실태 및 청소년쉼터 중장기 발전방안 / 백해정 · 좌동훈
- 15-R41 청소년 연계서비스 시범사업 개선방안 연구 / 서정아 · 전영기
- 15-R42 청소년 디지털 매체 및 서비스 이용실태 연구 / 성윤숙 · 김경준 · 김희진
- 15-R42-1 청소년의 디지털 역기능 사례조사 및 모니터링 연구 / 성윤숙 · 김경준 · 김희진
- 15-R43 201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최인재 · 이경상 · 김정숙 · 장근영
- 15-R44 청소년 · 가족 연계서비스 시범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 서정아 · 조성은
- 15-R45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6~2018)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김지경 · 최인재
- 15-R46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위상 정립방안 모색 연구 / 김현철 · 최창욱
- 15-R47 청소년 근로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방안 / 김지경 · 이상준
- 15-R48 나라사랑 체험프로그램 효과 분석 / 최창욱 · 성은모 · 정윤미
- 15-R49 2015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김기현
- 15-R50 2025 청년 전망 및 향후 정책 추진과제 연구 / 김기현 · 김형주 · 박성재 · 민주홍 · 김종성
- 15-R51 청소년 권리증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 김영지 · 모상현 · 이용교
- 15-R52 성남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방안 연구 / 김영지 · 모상현
- 15-R53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5 / 김희진 · 이종원 · 유성렬 · 김진석
- 15-R54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연구 / 최창욱
- 15-R55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강화를 위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 김형주 · 김정주 · 김혁진
- 15-R5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 관리체계 개선 및 2015년 사업 효과 만족도 조사 연구 / 김영지 · 정은주 · 김정주
- 15-R56-1 삼성전자 임직원과 함께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성과 분석 및 만족도 조사 연구 / 정은주

- 15-R57 과학적 실행 중심 모형기반 생명과학 교수학습 디자인 실험연구 / 황세영
- 15-R58 2015년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효과성 및 만족도 연구 / 황세영 · 윤민중
- 15-R59 휴먼네트워크 협력기관 실태조사 / 성은모 · 강경균
- 15-R60 청소년의 'X-질문' 발굴 및 개선방안 연구 / 강경균
- 15-R61 청소년활동안전센터 중장기 계획 연구 / 김영한 · 임지연
- 15-R62 휴먼네트워크 코디네이터 전문성 강화 연구 / 성은모 · 서동인
- 15-R63 아산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따른 연구 / 김영한 · 오해섭 · 정윤미
- 15-R64 서울시 청소년시설 운영실적 평가 / 모상현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5-S01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연구결과 공개 보고회 (1/19)
- 15-S02 온라인 도움행동의 원인 (2/9)
- 15-S03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1권역 (2/23~27)
- 15-S04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2권역 (2/23~27)
- 15-S05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3권역 (2/23~27)
- 15-S06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4권역 (2/23~27)
- 15-S07 2014년도 제1차 연구성과발표회 (3/12)
- 15-S08 2014년도 제2차 연구성과발표회 (3/13)
- 15-S09 일본진로교육의 현황과 과제 (3/31)
- 15-S10 2015년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 (4/16)
- 15-S11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위원 워크숍 (4/28)
- 15-S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교육 (4/29)
- 15-S13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1권역 (5/12~13)
- 15-S14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2권역 (5/18~19)
- 15-S15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3권역 (5/26~27)
- 15-S16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4권역 (5/28~29)
- 15-S17 교육 소외와 격차 해소를 위한 방과 후 청소년 정책 : 지역 방과 후 청소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5/18~19)
- 15-S18 2015년 꿈키움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5/21)
- 15-S19 2015 청소년 문화와 안전 국제포럼 (6/4)
- 15-S20 2015년 대안학교 진로직업교육 컨설팅위원 워크숍 (6/4)
- 15-S21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회 (6/26)
- 15-S22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II 데이터 분석 세미나 (7/2)
- 15-S23 2015년 대안교육 담당교원 등 연수 (7/8~10)
- 15-S2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관계자 워크숍 (7/9~10)
- 15-S25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장 워크숍 1권역 (7/27~28)
- 15-S26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장 워크숍 2권역 (7/28~29)
- 15-S27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장 워크숍 3권역 (8/3~4)

- 15-S28 2015년 제2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7/30~31)
- 15-S29 청소년의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방안 및 추진전략 (7/22)
- 15-S3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해외사례 (8/11)
- 15-S31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담당자 교육 워크숍 (8/21)
- 15-S32 제2회 동북아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의 성인기로의 이행 (9/17)
- 15-S33 민족정체성 확립의 역량을 미치는 4가지 주요요소 : 1960년대 및 70년대 초와 80년대 및 90년대 초에 자라난 젊은세대의 비교 (9/14)
- 15-S34 대안교육 국제포럼 2015 (9/16)
- 15-S3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성과발표회 (9/18)
- 15-S36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디지털 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10/19)
- 15-S37 제5회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10/23)
- 15-S38 한-중 국제세미나 (10/27)
- 15-S39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워크숍 -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현황과 전망 - (10/21~22)
- 15-S40 제4회 동북아청소년정책포럼 - 한·러 차세대 전무가 대화 : 동북아미래를 위한 한·러 청소년(차세대) 정책 협력 (11/17)
- 15-S41 국회다정다감포럼 -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과제와 방향 (11/5)
- 15-S42 2015년 시·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업무 담당자 워크숍 (11/26~27)
- 15-S4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심화워크숍 (12/17~18)
- 15-S44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기준 개발 (12/10)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1호(통권 제76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2호(통권 제77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3호(통권 제78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4호(통권 제79호)

기 타 발 간 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9호 :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0호 :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1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2호 : 기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3호 :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4호 :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9호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0호 :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1호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연구Ⅳ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2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Ⅰ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3호 : 청소년의 휴대전화 보유 현황과 이용빈도, 휴대전화 의존도
 - KCYPS 초1 패널 제5차년도 조사결과 분석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4호 : 청소년 체험·여행·문화활동과 삶의 만족도
 - KCYPS 초4 패널 제5차년도 조사결과 분석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5호 : 초등학교생 삶의 만족도의 종단적 변화 분석 - KCYPS 초4 패널 -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호 : 지금, 이 시대 왜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에 주목해야하는가?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호 : 아동, 청소년 보호체계 쟁점 사례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3호 :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과 정체성, 재정립이 필요한가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4호 : 동북아 청소년연구 분류체계 구축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5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현안과 의제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6호 :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운영 실태와 확대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7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체계화의 필요성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8호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청소년 삶의 질 정책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9호 : 그 나라는 어때? 세계의 청소년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0호 : 의료형 청소년쉼터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1호 : 학교와 지역사회 청소년체험활동 연계모형 평가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2호 : 청소년의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 이용 현황과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해외사례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3호 : 지역사회의 청소년 인성교육 실태와 과제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4호 : 청소년의 기업가정신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여건 조성 방안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5호 : 청소년 나눔활동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6호 : 동북아지역 청소년 국제교류 정책 및 사업 현황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7호 : 국가 근로 장학사업으로서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운영체계의 개선
 -대학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8호 : 재외동포청소년의 주요 이슈와 지원 방안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9호 : 청소년운영위원회 연간활동 효율화 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0호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기준 개발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1호 : 생애주기에 따른 아동·청소년·청년 연령구분 실태와 방향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2호 : 청소년분야 ODA 사업 추진 기본방향 마련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3호 : 학령기에 학교를 나온 청소년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4호 : 다문화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 청소년현안 Blue Note 불호
 청소년현안 Blue Note 여름호
 청소년현안 Blue Note 가을호
 청소년현안 Blue Note 겨울호

연구보고 15-R22

사회적통증개념을 통한 청소년정신건강 실태연구

인 쇄 2015년 12월 24일

발 행 2015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노 혁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 계문사 전화 02)725-5216(代)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